

겨울 병

시놉시스 매년 겨울 같은 시기에 온 몸이 얼 것 같은 통증이 시연에게 찾아온다. 통증의 이유는 전혀 알 수 없다. 어느 날, 시연은 어떤 꿈을 꾸 후 통증의 이유를 알게 되는데...

시연에게는 매년 1월 8월마다 온 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 통증이 찾아온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느낌이 시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S#.1 방 안(낮/안)

잠에서 깨어난 시연은 자신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살갓이 바늘에 찔리는 따가운 느낌도 든다. 시연은 익숙한 듯 침대에서 일어난다.

S#.2 부엌(낮/안)

시연은 방에서 나와 공허한 눈빛으로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응시하며 우유와 토스트를 우물거린다.

시연 (NA) 1월 8일이다. 매년 1월 8일만 되면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든다.

공허한 시연의 눈. 이런 증상에 익숙해진 것인지 굉장히 무뎠해 보인다.

시연은 달력을 응시하다가 이내 달력에서 눈을 떼고 TV 전원을 켜는다. TV에서는 의사들이 나오는 건강 전문 채널이 방영되고 있다.

시연 (NA) 나에게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다.

TV 속 의사들이 패널로 등장해 뭐라고 말한다.

시연 (NA) 의사들은 전부 아무 이상 없다고 말한다. 난 정말 온 몸이 얼어버릴 것 같은데.

TV 속 의사가 뭐라고 말한다. 의사의 목소리가 웅얼거린다.

공허한 눈으로 TV를 응시하는 시연.(클로즈업) 이내 TV 전원을 꺼 버린다. 시연은 우유를 작은 숟가락으로 빙빙 휘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 턱을 꾀다.

컵에 담긴 우유는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다. 회전하는 우유를 비추다 잠든.

S#.3 꿈 속 (밤/안)

꿈을 꾸는 시연. 시연의 꿈 속에 한 여자가 엎드려 쓰러져 있다. 주변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을 가늘게 뜨고 시연은 그 여자에게로 다가간다.

시연 괜찮으세요?

시연의 물음에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여자. 시연은 손을 뻗어 여자를 깨우려고 한다. 그 순간, 시연의 신발에서 질퍽, 하는 소리가 난다. 시연은 자신의 발을 쳐다본다. 시연의 발 밑으로 핏물이 번지고 있었다. 깜짝 놀란 시연은 뒤로 넘어진다. 다시 여자가 있던 자리를 쳐다보는 시연. 여자는 사라지고 없다. 바닥에 빨간 피가 물든다.

시연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헉.

꿈에서 깬 시연이 벌떡 일어난다. 심장이 쿵쿵쿵쿵 뛴다. 시연의 온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윽고 몸이 얼어붙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연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한다. 아픈 머리를 붙잡고 숨을 몰아쉬는 시연.

S#.4 부엌(낮/안)

시연은 비틀거리며 물컵에 물을 따른다. 물을 따르던 시연. 이내 머리가 깨질듯한 통증이 다시 나타나고, 시연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놓친다.

짹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진다. 투명한 유리잔은 산산조각이 나 있다. (클로즈업)



참고 이미지

불안한 눈빛으로 깨진 유리잔을 바라보는 시연. (핸드 헬드) 순간 시연이 잊고 있었던,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 심연 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오른다.

깨진 유리 잔 서서히 클로즈업.

S#.5 회상 - 아파트 벤치 (해 질 무렵/밖)

학창시절, 시연에겐 가장 의지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 윤진이 있었다. 둘은 가장 친한 사이였지만, 시연은 늘 윤진에게 무언가 거리감을 느꼈다. 자신의 속 얘기까지 털어놓는 시연과 다르게 윤

진은 늘 자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연은 그런 윤진에게 내심 서운함을 느꼈다.
시연과 윤진이 벤치에 앉아있다.

시연 (뻘췌통한 표정으로 장난스럽게) 넌 진짜 비밀이 많다. 너 얘기도 나한테 들려줘.

윤진 (싱긋 웃어 보이며) 나한테 비밀이 어디 있어.

시연, 윤진의 말에 미묘하게 섭섭한 표정을 짓는다. 본인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진은 아닌 것 같아서. 시연은 시연은 발 끝으로 운동화를 통통 두드린다. 운동화 클로즈업. 시연은 윤진과의 관계가 가까운 듯하면서도 멀다고 생각했다.

S#.6 회상 - 거리

시연과 윤진이 함께 하교한다. 어딘가 어두워 보이는 윤진의 얼굴. 시연은 윤진에게 묻는다.

시연 너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윤진 (열게 웃어 보이며) 아무것도 아냐.

시연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 해봐. 내가 다 들어 줄게.

윤진 아무 일도 없는데 들어 줄게 뭐가 있어.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어.

순간 시연은 그동안 윤진에게 쌓아왔던 감정이 터진다.

시연 (화를 내며) 아무 일도 없긴, 무슨 일 있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해주는데? 너는 내가 친구라고 생각 안 해? 나만 너 친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너가 이럴 때 마다 너무 짜증나.

시연은 당황하는 윤진을 뒤로하고 휙 돌아 가버린다. 윤진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연아- 하고 계속 부른다. 시연은 윤진을 무시하고 집으로 간다.

S#.7 회상 - 시연의 집 (밤/안)

집에 도착한 시연. 시연은 가방을 휙 던져버리곤 침대에 눕는다. 핸드폰 화면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연. 신경질적으로 핸드폰 던져버린다. 바닥에 놓인 핸드폰 클로즈업. 화면 속 날짜는 2019년 1월 5일이다.

S#.8 회상 - 시연의 집 (낮/안)

<insert> 시계가 째각거린다.

<insert> 탁상 달력과 앞에 놓인 핸드폰. 핸드폰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켜진다. 화면 속에 알림이 뜬다. [서연/AM 08:20] 시연아 메시지 받았어? 윤진이가... 화면 속 날짜는 2018년 1월 8일.

시연이 핸드폰을 확인한다. 화면 암전.

S#.9 회상 - 옥상(오후/밖)

검은 화면. 대화 소리가 들린다.

(V.O) 개, 가정폭력 당했었다. 우울증도 심했다던데... 너 알고 있었어? 윤진이랑 제일 친했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웅성거리는 목소리로 바뀐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연의 옆모습이 등장한다. 빨강계 부어 오른 눈으로 대화를 듣던 시연.

<FLASH BACK>

시연과 윤진의 행복했던 과거를 보여준다. 컷컷으로 짧은 영상 여러 개 나열.

털썩, 소리와 함께 화면 암전.

시연은 이 날 이후로 받은 충격과 죄책감에 자신의 기억 속에서 윤진을 도려 내어 버렸다. 시연은 윤진이 죽은 그 날마다 온 몸으로 윤진을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이다. 시연이 앓고 있던 겨울병의 정체는 윤진이었다.

S#.10 부엌(낮/안)

시연은 깨진 유리잔 조각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응시한다. (클로즈업)

본인의 트라우마인 윤진의 존재를 자각한 시연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깨질듯한 두통이 몰려온다. 몰아치는 죄책감에 시연은 머리를 부여잡고 웅크려 앉아 숨을 헐떡인다.

깨진 유리조각에 피가 떨어진다. (시연의 환각)

화면 암전.

S#.11 꿈 속

시연은 그날 밤, 또 다시 꿈을 꾸다. 배경은 S#3과 동일. 이번엔 옆드려 있던 여자, 윤진이 보이지 않는다. 시연은 어둑어둑한 길을 계속 걷는다. 그때, 시연의 앞에 윤진이 등장한다. 시연에게 또 다시 몸이 얼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통스러워하는 시연. 이때, 윤진이 시연을 꼭 안는다. 윤진의 온기에 시연의 통증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다.

윤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

말 없이 포옹하는 둘.

시연이 그간 앓았던 겨울병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치유의 순간이었음을.

시연과 윤진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끌어안는다.

Fin.